

## 냉면 한 그릇

안주리

깜깜한 새벽, 예고없이 울린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깨고 보니 5시도 안 된 시각. 김승훈 신부님이 선종하셨다는 뜻밖의 소식에 정신이 멍해지고 말았다. 몇 번을 다시 되묻고 나서야 길을 나섰다. 잔뜩 흐린 새벽 하늘은 곧 울음을 터뜨릴 듯 그렇게 세상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막막한 느낌으로 사무실로 향하는 한적한 새벽의 지하철, 세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하루를 열고 있었다.

뜻밖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사무국은 겨를도 없이 부고를 알리고, 보도자료를 보내고, 소식을 전하는 분주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 시각 신부님과 가까웠던 몇몇 지인들과 동료신부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톨릭 의식에 따라 입관절차가 진행되고, 그제서야 신부님의 선종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빗줄기는 갈수록 굵어지고 있었다. 잠시 '축제'라는 영화를 떠올렸다. '축제'는 이렇게 막을 열었다.

신부님이 함께 하시고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있었지만 천주교인권위원회와도 오랜 세월 함께 호흡해 오셨다. 그러기에 언제나 함께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던 신부님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식구들은 또다른 인연과 추억을 지니고 있다.

신부님이 명동성당에 불일이라도 계신 날이면, “밥 먹자”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모습, 그렇게 항상 먹거리부터 챙겨주셨다. 특히 즐겨하시던 류산슬밥과 옛날짜장 때문에 성당 인근 중화요리집에서 인권위 식구들까지 좋은 대우를 받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다. 그분은 그런 분이셨다. 명동성당에 오셔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젊은 실무자들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기시는 분이셨다. 점심상을 앞에 두고 요즘 일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려도 그저 빙긋이 웃으시며 듣고만 계시던 모습이 그립다. 요즘처럼 이런 시국이라면 나눌 말씀이 많을 터인데, 그 모습은 활동가들의 의견이나 걱정을 경청하고 나누어 주시는 그분만의 방식이었다. 김승훈 신부님께서서는 이북 출신이셔서 그런지 특히 냉면을 좋아하셨다. 한번은 “신부님, 서울 장안에 평양 냉면의 4대천왕이 있습니다. 신부님이 안 가보신 냉면집에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도 그분은 그저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첫째 날 아침 전화연락을 받자마자 한걸음에 달려온 분이 있었다. 백기완 선생님이셨다. 언젠가 신부님이 백 선생 면회를 가셨을 때, 감사하다며 이번에 출옥하면 꼭 맛난 냉면 한 그릇 대접하겠다고 하셨단다. 백 선생님은 아직 그 냉면 대접을 못했다는 말씀과 함께 서글픈 미소를 머금고 자리를 떠나셨다. 이런 사연이 어디 이뿐이라? 어떤 분은 냉면이 겨울에 제철이라는데, 이번 겨울에는 냉면 한 그릇으로 겨울맛이를 해볼 생각이다.

다른 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저렇게 “신부님 식사 한번 하시지요” 했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다 신부님은 선종하셨다. 최근 잠시 활동을 정지한 듯하여 많은 분들이 안부를 궁금해하셨고, 잠시 해외 교포 사목을 하시다 치료차 한국에 머무시면서 본당 발령을 앞두고 계셨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던 것 같다. 마침 신부님 장례를 모시던 날은 교구

본당 발령이 나던 날이었다.

신부님을 모신 자리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녀갔다. 과거에 함께하였으나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한 자리에 모여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였다. 아마도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늦은 밤 김승훈 신부님 사제 관문을 두드려 본 이들도 있으리라. 그러나 시끌벅적한 술자리를 물리고 한적해진 빈소에 밤새 신부님 곁을 지키고 있던 이름없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선량한 가톨릭 신자들이었다. 그 많은 활동들과 직함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고독한 ‘사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셨고, 그렇게 ‘축제’는 저물어 가고 있었다.

여름 같던 가을을 맞고 겨울 같은 가을이 지나가고 있다. 바로 어제일인 듯 아직도 그 모습이 선하게 되살아나는데 새삼 그분의 자리를 느낀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언덕이 되어 주시고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던 그분 삶의 자리를 말이다. 몇 년 동안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신부님을 가까이 뵈 수 있었던 인연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새롭게 주소록을 정리하며 신부님의 이름을 이제서야 삭제하였다. 인권위 식구들 모두 하늘로 띄우는 마음의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께서 다 아시는데, 무얼 걱정하냐”는 그분 말씀대로 말이다.

천주교회에서는 12월이 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된다. 이어 성탄을 맞는데 이 축제의 기쁜 소식이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의 축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대림 4주간에는 네 개의 색깔의 초를 밝히는데 이때 검은 빛으로부터 점점 흰빛으로 변화되고 이는 어둠 속에 찾아오시는 빛이신 주님을 상징한다. 12월 10일은 UN이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일이고, 1980년 광주항쟁을 체험한 한국교회가 1981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일에 가까운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정하고 있다.

뒥구는 낙엽과 드높은 하늘이 겨울을 예감하는 듯하다. 우리에게 겨울은 인권주일과 함께 시작된다. 개혁에 대한 요청과 시대적 징표들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 정치권의 부도덕함과 불행한 결정들이 가져오는 분노와 상실감을 어찌할 것인가. 이라크 파병문제, 테러방지법, 노조탄압과 외해 때문이라지만 삶의 끝자락에 몰려 죽음을 선택하는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송두율 교수 사건을 접하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 송 교수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내의 비이성적 분위기와 그로 말미암은 소모적인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송 교수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몰이를 통해 법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판단에 앞서 '마녀화' 할 수 있다는 데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를 공안적 분위기로 몰아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은 현존하는 엄정한 성문법이지만 미래에는 사문화되어야 할 냉전과 공안의 산물이 아니던가. 송두율 교수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일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내면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된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자 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라는 복음 말씀이 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 쉽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한 해를 정리하기에는 지속되는 문제들과 갈등들이 우리에게 한 호흡 가다듬을 틈을 주지 않는다. 반성적인 성찰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천주교인권위는 22회 인권주일을 준비하고 있다. 거의 한 해도 거르는 일 없이 인권

주일 행사를 함께 해 오시던 김승훈 신부님을 생각하며 여러 신부님과 함께 추모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자리를 다시 매김하면서 말이다. ■

---

안주리 edithe@cathrights.or.kr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사형폐지소위원회  
위원이며, 인혁당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